現代重工業 건조 — 「프론트 드라이버」호 91년도 세계 최우수선박으로 선정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6만7천톤급 OBO 船 「프론트 드라이버」號가 미국의 해운잡지인 〈머린로그〉誌와 〈매리타임 리포터〉誌에 의해 '91년도 세계 최우수 선박으로 선정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3만5천m^3급 액화천연가스(LNG)船이 최우수선박에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83년 이후 올해까지 9년간 최우수선박으로 연속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프론트 드라이버」號는 스웨덴 프론트라인社의 주문을 받아 건조한 광석(Ore), 벌크(Bulk), 원유(Oil)운반선으로서, 전장 2백85m, 너비 45m, 높이 29.5m의 선체에 현대중공업이 자체 제작한 1만8천8백마력의 연료절약형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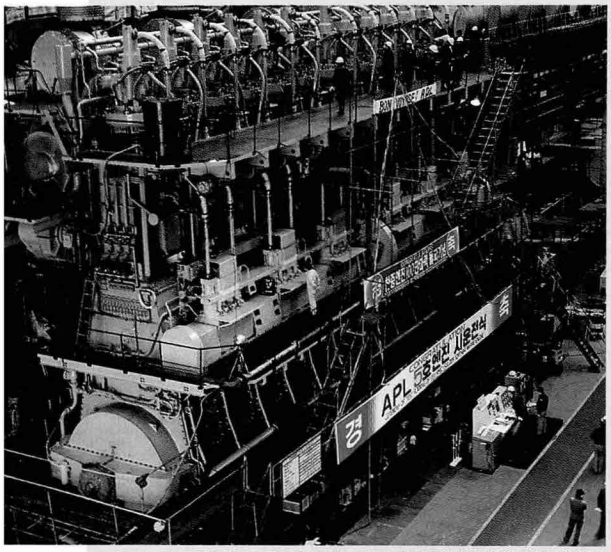
〈머린로그〉誌와 〈매리타임 리포터〉誌는 발행부수가 각각 2만부를 넘는 미국의 2大 해운잡지로서, 매년 12월호에 그해 건조된 선박중에서 디자인, 성능, 기술에서 가장 우수한 선박을 선정 보도해오고 있다.

三美종합특수강 항공기엔진 부품용 4각관 개발 성공

삼미종합특수강이 국내 최초로 항공기 엔진용 내열스테인리스강 4각관 개발에 성공하는 개가(凱歌)를 올렸다.

89년 7월부터 4각관 개발에 들어간 삼미종합특수강 중앙연구소는 금년 6월 독자적으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최근 세계 3大 항공기 엔진 전문업체인 미국 프랫 앤 위트니(P&W)사로 부터 품질승인을 받았다.

韓國重工業, 선박용 엔진 생산설비 증설



한국중공업이 APL社(미국)의 발주를 받아 제작한 5만7천마력급 선박용 디젤엔진

한국중공업은 최근 조선산업의 호황을 맞아 선박용 대형 엔진(6천마력급 이상)의 생산설비를 증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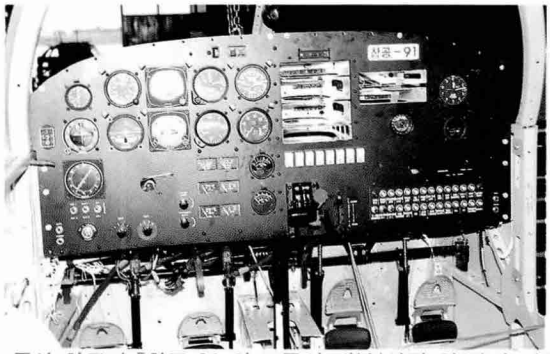
이같은 증설은 국내 조선소들의 유조선(VLCC), OBO선(광석, 벌크, 원유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확장이다.

이로써 한국중공업은 船種에 따른 다양한 엔진은 물론 6만마력급 이상의 초대형엔진까지도 생산할수 있게 되었으며, 연간 매출규모는 엔진생산 부문에서만으로도 약 1천억원(韓重 전체의 10%)에 이르게 되었으며, 연간 생산규모는 종전의 대형엔진 26대(60만마력)에서 35대(85만마력)로 신장되었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4각관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항공기엔진의 핵심부품용 소재이며, 삼성항공에서 유니슨링으로 가공조립되어 P&W사에 공급하게 된다.

삼미종합특수강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종 구조재를 비롯, 항공기 골격재, 정밀기계부품등에 사용될 압출 이형재의 양산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항공기시대 개막 — 「창공 91」 시험비행 성공



국산 항공기 「창공 91」의 조종실 내부(사진 왼쪽)와 시험비행중인 모습

항공기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한항공과 삼선공업, 한국화이바 등 3社가 3년여의 연구끝에, 드디어 모든 공정이 우리의 기술진에 의해 설계·제작(엔진 제외)된 최초의 국산 항공기—「창공 91」을 성공리에 이륙시켰다.

11월 25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활주로를 사뿐히 이륙, 20분간 고공을 날고 다시 활주로에 안착함으로써 성공적인 시험비행이 이루어졌다.

국산 항공기—「창공 91」은 대한항공을 주축으로 삼선공업, 한국화이바가 1988년 항공우주연구조합을 결성해 연구에 착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 기간중 약37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했으며 기본설계에만 1천장이 넘는 도면이 제작되었고, 부품만도 3천여종 4만여개가 들어갔다.

동체길이 7.7m, 폭 10.2m, 무게 7백80kg인 「창공 91」은 최고시속이 2백42km이며, 항속거리는 1천5백km로써, 서울에서 중국의 북경이나 일본의 동경까지 논스톱 비행을 할수있다.

다목적 항공기인 「창공 91」은 조종사 양성훈련, 공중취재 등은 물론 산림·해안 정찰, 레저·스포츠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시험비행의 성공으로 교통부의 형식승인을 받는등 양산화에 들어갈 계획이며, 대당가격이 1억원대로 3억~4억원에 달하는 외국의 경비행기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여 국제 경쟁력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창공 91」호는 실용성과 상업성을 갖춘 최초의 국산항공기로 항공관계자 들은 수출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간 감항성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해외시장에도 진출, 연간 2백대 이상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산 항공기—「창공 91」의 시험비행성공은 우리나라가 항공기 제작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민간수송기와 군용훈련기등 차기 대형항공기 개발을 위한 기본 기술능력과 체계를 갖추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항공기 개발은 과학기술처의 국책연구과제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핵심 연구 개발과제로서, 최초의 국산 항공기—「창공 91」의 연구·개발은 정부는 물론 관련업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업이다.